

‘아픈 몸’과 계급

— 식민지기 프롤레타리아 소설의 질병과 장애 재현*

최 은 혜**

요약

식민지시기 프롤레타리아 소설에서 재현되는 ‘아픈 몸’은 운명적인 것으로 치부되거나 치유·치료의 영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프로소설은 질병과 장애를 계급과 교차하여 재현하면서 그것을 사회적 것으로 사유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때의 질병과 장애는 은유라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현실 그 자체이며, 사회구조적 차별과 억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들 소설은 ‘아픈 몸’을 현실적으로 드러내 보여 주면서 ‘건강한 몸’으로 발현되는 ‘정상성’의 폭력을 고발하고 그것에 균열을 가한다. 이때의 정상성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가 만들어 내는 질서를 포괄한다. 이런 지점을 염두에 주면서, 본고에서는 질병과 장애를 재현하는 프로소설의 두 양상을 살핀다. 하나는 억압과 착취가 새겨지는 ‘아픈 몸’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소설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픈 몸’을 통해 존재와 연대를 이끌어내는 것을 보여주는 소설들이다. 요컨대 프로소설에서 재현되는 질병과 장애는 극복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진다고보다는, 아픈 존재가 놓인 사회적 조건을 드러내 보여주고, 오히려 고통을 통해 주변적 존재들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주제어: 아픈 몸, 질병, 장애, 프롤레타리아 소설, 프로소설, 이복명, 산업재해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1388)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목차

1. 질병·장애에 대한 은유적 사유를 넘어
2. 억압과 착취가 새겨진 몸의 현전
3. 산재, 존재와 연대의 가능성
4. 결론

몸 자체는 메시지다. 인간은 몸을 통해 교감한다.
-아서 프랭크, 『몸의 증언』

1. 질병·장애에 대한 은유적 사유를 넘어

근대 초기 우생학과 병리학이 유입되면서부터 조선에는 ‘건강한 몸’에 대한 이상이 강고하게 자리잡게 된다. 대한제국기의 지식인들은 “‘위생’= ‘근대’ 혹은 ‘위생’=‘자강’이라는 공식”을 반복하며¹⁾ 위생 담론에 근거한 ‘건강한 몸’을 문명화된 근대 국민국가의 대열에 오를 수 있는 중요한 거점으로 삼았다.²⁾ 식민지기에 부상한 건강 담론은 피식민자 개개인을 제국의 시스템에 순응하는 몸으로 길들이는 데 활용되었는데³⁾ 중일전쟁을 거쳐 총동원체제에 들어선 시기부터는 “국방력의 충실, 노동력의 확충”이라는 목표로 수렴되어 조선인의 몸은 언제나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상태

1) 엄학준·문한별, 「근대 초기 위생 담론에 투영된 왜곡된 국민 개념과 감성적 민족 주체: 국권 상실 이전 시기 학술지와 협회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42, 사단법인 한국문학과 예술연구소, 2022, 11면.

2) 관련된 연구로는 엄학준·문한별의 논문 이외에도 다음 글들을 참고할 수 있다. 이승원, 「20세기 초 위생 담론과 근대적 신체의 탄생」, 『문학과 경계』 1(1), 문학과경계사, 2001; 고미숙, 「『독립신문』에 나타난 ‘위생’ 담론의 배치」, 『근대개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변용』, 소명출판, 2005.

3) 권체린, 「1920-1930년대 ‘건강’과 ‘질병’을 둘러싼 대중담화의 양상」, 『어문론총』 64,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190면.

로 강한 통제를 받았다.⁴⁾ 이처럼 식민지기까지 몸은 국민 만들기를 위한 강력한 규율과 훈육의 장소였다.⁵⁾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의 반대편에 필연적으로 질병이나 장애와 같은 ‘아픈 몸’이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건강을 추구하면 할수록 질병과 장애는 퇴치되거나 치유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건강과 질병·장애가 각각 지향과 극복의 영역에 자리하게 되는 이 과정은 식민주의의 ‘정상성’이라는 굳건한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가운데 식민지기에 질병과 장애가 등장하는 소설이 다수 창작된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 시기 소설에 재현된 “장애와 손상의 형상이 고립된 소수가 아니라 잠재적 다수”를 이룬다고 지적한 최경희는, 식민지가 된 국가를 장애화하는 상상력 속에서 몸의 손상을 다루는 소설이 급증했다는 논의를 펼친다. 그에 따르면 식민 권력에 의한 검열의 한계를 경험한 작가들은 “신체적 기능과 움직임의 자유를 결여한 캐릭터”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손상된 텍스트를 생성할 수밖에 없다. 이때 장애 재현이란 검열의 압박을 받는 작가, 손상된 캐릭터와 텍스트를 연결하는 은유라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 나아가 그는 작가들이 장애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일본의 식민 통치가 견인하는 근대화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한다.⁶⁾ 즉, 은유로서의 장애가 근대성에 기반한 식민주의의 ‘정상성’을 되묻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한민수는 소설 속에서 은유로 사용된 장애가 오히려 식민지 지식인들에 의해 구성된 ‘정상성’을 견고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4) 윤희상, 「전시체제기 피식민 ‘신체’의 구성과 문학적 증언 연구: 중독, 장애, 오염의 상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12면.

5) 체력장과 교련의 신설, 황국신민체조와 건강증진운동 등의 보급과 같은 신체 규율에 대해 다룬 연구로는 정근식의 글이 대표적이다. 정근식, 「식민지 지배, 신체 규율, ‘건강’」, 미즈노 나오키 외, 『생활 속의 식민주의』, 산치럼, 2007.

6) Kyeong-Hee Choi, *Impaired Body as Colonial Trope: Kang Kyongae's "Underground Village"*, *Public Culture* v.13, 2001, pp.432-434.

지적한다. 그는 문(文)이 시각 장애를 가리키는 맹(盲)과 결합하면서 문맹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근대의 미달로 여겨지는 구술대중, 즉 문자 이해독자에 대한 은유로 사용되던 현상에 주목했다. 더불어 1930년대 소설에서 급증한 시각장애인 재현이 이들 대중의 은유로 사용되었던 점도 동일한 맥락 위에서 설명되는데, 이와 같은 은유들은 모두 근대화에 대한 지식인들의 열망과 좌절 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구술대중 및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주변화를 전제”한다는 것이다.⁷⁾ 이 밖에도 식민지기 질병에 대한 은유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⁸⁾ 예컨대 1920년대까지 결핵은 근대 문명에 매혹된 청년에게 내려지는 처벌이나 요절한 천재의 표상으로 비유되는 가운데⁹⁾ 낭만의 질병으로 여겨졌으며,¹⁰⁾ ‘스페인 독감’과 같은 전염병이 창궐한 팬데믹 상황은 『만세전』에서처럼 공동묘지로 비유되면서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¹¹⁾

지금까지 살펴본바, 식민지기 소설의 질병과 장애를 다룬 그간의 연구들은 ‘아픈 몸’의 재현을 시대적이거나 정치적인 은유로 사유해 온 경향이 크다. 이러한 방식은 텍스트 이면에 자리한 당대적 무의식과 사회문화적 의미를 깊이 있게 독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자칫 질병·장애의 물질성과 그 실제적이며 실천적인 함의를

7) 한만수, 「식민지 시기 검열과 1930년대 장애우 인물 소설」, 『한국문학연구』 2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5, 28면.
 8) 잘 알려져 있듯 수전 손택은 그의 저서 『은유로서의 질병』에서 암, 결핵,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낭만의 은유를 예로 들면서, 그러한 은유가 조성한 사회문화적 현실을 깨부셔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지 은유의 사용을 절제한다고 해서 은유를 멀리 떼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은유를 폭로하고, 비판하고, 물고 늘어져,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어야 한다.” 수전 손택, 『은유로서의 질병』, 이재원 옮김, 이후, 2002, 239면.
 9) 김주리, 「식민지 지식 청년의 표상과 결핵」, 『서강인문논총』 41,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참고.
 10) 최성민, 「질병의 낭만과 공포: 은유로서의 질병」, 『문학치료연구』 54, 한국문학치료학회, 2020, 317-325면.
 11) 백승숙, 「염상섭의 〈만세전〉과 1918년 스페인독감」, 『문화와 융합』 44(4),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481-483면.

간과하게 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식민화된 조선, 낭만적 처벌, 요절한 천재 등에 대한 은유로 ‘아픈 몸’을 바라보는 연구 경향의 편향은 소설에 등장하는 “개개의 불구자를 비가시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¹²⁾ 질병·장애의 억압과 배제를 전면화하는 텍스트의 존재와 그 의미를 놓치게 하는 기반이 된다. 실제로 식민지기 질병과 장애의 현실적 재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소설(이하 프로소설)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¹³⁾

1920~1930년대를 풍미한 프로소설의 중요한 기여 중 하나는 ‘아픈 몸’을 정치경제학적 조건 속에서 재현함으로써, 질병과 장애를 개인의 운명에 의한 것으로 보거나 의학적으로 치유·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서 계급적인 것으로 사유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있다. 이 시기는 제국에 의해 식민 통치를 받던 때이면서 동시에 자본주의가 정착하고 전개되던 때이기도 하므로, 자본주의적 토대에서 발생하는 계급의 문제는 질병·장애 상황과도 교차할 수밖에 없었다. 마타 러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가 “노동관계에서 비롯된 사회 기반 범주에 속하며, 자본주의 특유의 착취 구조가 빚어낸 산물”이기도 하다는 점을 지적했다.¹⁴⁾ 그에 따르면 생산력 발전을 가장 중시하는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임금 노동의 현장에서 내쫓길 수밖에 없었던 데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선진 산업국가들의 사례가 증명하듯 이후의 자본주의는 복지를 내세우며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장애인 노동자를 착취하는

12) 윤희상, 앞의 글, 37면.

13) 이 논문이 전제하는 ‘프롤레타리아 소설’은 리얼리즘과 카프 중심성에 결박되어 있던 정전의 목록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사회주의적 문화 현상의 자장 아래 있었던 텍스트들을 폭넓게 끌어 안은 것이다. 조선의 프로소설에서 ‘프롤레타리아’는 공장 노동자를 의미하기도 했지만, ‘학대받는 이’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렇게 볼 때, ‘프롤레타리아 소설’은 순히 공장 노동자가 등장하는 것에 한정되거나 사회 변혁에 대한 미래적 지향을 담은 것만으로 단정될 수 없다.

14) 마타 러셀, 『자본주의와 장애』, 조영학 옮김, 동아사이, 2022, 20면.

구조를 만들어냈다.¹⁵⁾

프로소설의 질병·장애 재현은 정신질환보다는 신체 손상에 집중되어 있다. 그 이유를 실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하는 몸'이 중요하다는 점으로 추론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프롤레타리아가 신체적 능력을 활용해 노동력을 팔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고 부르주아는 그것을 착취하면서 잉여를 남기는 구조로 자본주의 사회가 작동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 메카니즘하에서 노동하기 힘든, 혹은 노동할 수 없는 손상된 몸은 생산 관계 안에서 더 가혹한 착취를 경험하거나 생산 관계 밖으로 내몰려 프롤레타리아마저 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몸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에게 생존을 위해 매우 필수적인 자산일 수밖에 없다. 그런 몸이 손상된 상태는 노동력 착취에 기대어 있는 구조를 엄폐하는 문명의 빛 속에서 그 그림자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 준다. 프로소설에서 유독 신체 손상의 모티프가 다른 장애에 비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이런 점들과 맞물려 있는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글은 식민지기 '아픈 몸'의 은유적 의미에 집중하는 기존의 연구 경향을 넘어서, 질병과 장애를 현실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프로소설을 통해 그것의 정치적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¹⁶⁾ 프로소설에서 재현되는 '아픈 몸'은 은유라기보다는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는 현실 그 자체이며, 사회구조적 차별과 억압으로 만들어진다. 프로소설은 그러한 몸을 현실

15) 위의 책, 21-23면.

16) 이 연구는 질병과 장애를 분리하지 않고 '아픈 몸'이라는 공통성 속에서 함께 살핀다. 김은정에 따르면 "장애와 질병은 그 의학적 정의와 진단으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사회적 과정 속에서 같은 범주로 명명되기도 하고 특정한 억압과 폭력의 경험을 발생"시킨다. "장애와 질병의 엄격한 구분을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을 통해 곧 치유와 치료의 상징적·담론적·실제적 폭력이 서로 얽혀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건강과 정상성에 함께 도전하며 질병을 장애와 연결하는 것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뚜렷한 경계 자체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김은정,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강진경·강진영 옮김, 후마니타스, 2022, 11-12면.

적으로 드러내 보여 주면서 ‘건강한 몸’으로 발현되는 ‘정상성’의 폭력을 고발하고 그것에 균열을 가한다. 이때의 정상성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질서를 모두 포괄한다. 2장에서는 가난이 새겨진 몸을 재현하는 소설들을 중심으로, 3장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하다가 다친 몸을 재현하는 소설들을 중심으로 그 양상을 살피고 각각이 지니는 의미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2. 억압과 착취가 새겨진 몸의 현전

김승섭의 저서 『우리 몸이 세계라면』에는 가난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연구 사례가 소개된다. 위스콘신대학의 연구팀에서 가구 소득에 따라 영유아의 뇌를 분석했는데, 정보 처리와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대뇌 회백질이 태어날 당시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면적상의 차이를 보이게 됐다는 것이다. MRI를 분석한 결과 높은 소득수준을 가진 가정에 있는 아이들의 회백질 면적은 낮은 소득수준에 있는 아이들의 그것보다 월등히 넓게 나타났다. 저자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뇌는 가난으로 인해 자신의 잠재적인 역량 자체를 발휘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⁷⁾ 이처럼 가난이 몸에 새겨진다는 문장은 은유가 아니라 사실이다. 몸에는 여러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담겨 있고, ‘아픈 몸’ 역시 구조와 제도의 폭력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로디 슬로라크가 지적하듯 “장애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손상을 유발하는 사건은 가난한 가정에서 훨씬 더 흔하게 벌어진다.”¹⁸⁾ 이는 식민지 조선에서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단적으로 예를 들어 1938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안과는 영양실조, 말라리아성 각막

17) 김승섭, 『우리 몸이 세계라면』, 동아아시아, 2018, 135-137면.

18) 로디 슬로라크, 「마르크스주의와 장애」, 이예송 옮김, 『마르크스21』 40, 책갈피, 2021, 258면.

염, 홍역·두창·감질로 생긴 눈병 등에서 시각장애인 발생 원인을 찾으며, 가장 주요한 발병 이유로 빈곤을 지적했다.¹⁹⁾ 또한 당시부터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 손상이나 진폐증·소음성 난청·감압병 등의 직업적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었고,²⁰⁾ 그렇게 질병과 장애를 얻게 되면 관련 정책의 미비 속에서 노동하지 못하는 몸이 되어 더욱이 빈곤한 삶에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프로소설의 질병·장애 재현은 바로 이런 지점을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다. 즉, ‘아픈 몸’에 어떻게 억압과 착취가 새겨지게 되는가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식민지기 여타의 질병·장애 재현 서사와 변별된다.

몸이 다시 으스스스스하고 메스꺼움이 나기 시작했으나 먹은 것이 없어서 게우지도 않았다. 아쟁의 눈 앞에는 그의 전 생애가 한 번 쪽 나타났다. 어려서 촌에서 남의 집 심부름 하던 것으로부터, 뒷집 닭 채다 먹고 들켜서 석 달을 매 맞으며 징역하고는 상해로 와서 공장에 들어갔던 팔 년 전에 인력거를 끌기 시작했다.

팔 년 동안 인력거 끌던 생각이 났다. 에스톨하우스 호텔에서 어떤 서양 신사를 태우고 오 리나 되는 올림픽 극장까지 가서 동전 열 닢 받고 억울한 김에 동전 두 닢을 더 달라고 조르다가 발길로 채이고 순사에게 얻어맞던 생각이 났다. 또 언젠가는 한 번 밤이 새로 두 시나 되어서 대동여관에서 술이 잔뜩 취해 나오는 께올리(高麗人) 신사 세 사람을 다른 두 동무와 같이 태우고 범계 보강리까지 십 리나 되는 길을 가서 셋이 도합 십 전 은화 한 닢을 받고 어처구니 없어서 더 내라고 야료치다가, 그들은 이들에게 단정도로 죽도록 얻어맞고 머리가 깨어져서 급한 김에 인력거도 내어버리고 도망질쳐 나오던 광경이 다시 생각이 났다. 그리고는 또 한 번 손님을 태우고 정안사로로 가다가 소리도 없이 뒤에서 오는 자

19) 이요한, 「1920~30년대 일제의 장애인정책과 특징」,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2면.

20) 김창엽·문옥륜, 「일제하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문헌 고찰」,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24(1), 대한예방의학회, 1991, 48-54면.

동차에 떠밀리어 인력거 부수고, 다리 부러진 끝에 자동차 운전수 발길에 채이고 인도인(印度人) 순사 몽둥이에 매 맞던 것도 생각이 났다.

길다면 길고 멀다면 먼 팔 년 동안의 인력거 생활! 작은 일, 큰 일, 눈물날 일, 한숨 쉬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시 연상이 되어서 그는 엉엉 울었다.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목이 갈한 것을 느끼면서 몸을 일으키려 하다가 온몸이 쥐 일어서는 것을 감하여 ‘끔’ 소리를 치고 도로 옆어지고 서는 다시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²¹⁾

주요섭의 「인력거군」은 당시에 빈번하게 등장하던 인력거꾼 아쟁의 참담한 말로를 서사화한다. 이 소설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처럼 궁핍한 삶의 보편적 비극성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 비참의 원인을 사회로부터 찾는다. 8년간 쉬지 않고 인력거를 끌던 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인력거 부르는 소리에 달려가다가 벌떡 넘어지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먹은 떡을 게워내고 어지러움증을 느끼며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떠는 등 몸에 이상 증세를 보인다. 이상함을 느낀 그는 무료로 병을 보아준다는 사천로 청년회에 찾아가지만 의사는 만나지 못하고 기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웬 신사의 설교를 듣게 된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예수의 품 안에 안겨야 한다는 신사의 말에, 그는 문득 왜 죄를 받아 굶은 노동을 하는 인력거꾼과 다르게 누군가는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노동하는 몸과 그렇지 않은 몸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세상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이다. 병원을 나온 그는 자신이 지구 밖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고독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가지만, 다시 몸이 으슬으슬 춥고 메스꺼움이 나는 것을 느끼다 갑작스레 죽게 된다. 그러나 곧 검시하러 온 순사와 의사에 의해 아쟁의 죽음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과도한 달음질로 인해 인력거꾼들이 일을 시작하고 보통 9년 무렵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들의 대화는, 그의

21) 주요섭, 「인력거군」, 『개벽』 58, 1925.4., 18면.

죽음이 노동에 의한 과로사라는 것을 알려준다.

위 인용문에는 아쟁의 몸에 켜켜이 쌓인 노동과 핍박의 궤적이 길게 서술되어 있다. 아픈 몸을 느끼며 그는 자신의 생애를 반추한다.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된 가난한 삶은 공장 노동자를 거쳐 여러 수모를 겪었던 인력거꾼 8년의 시간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는 노동하면 할수록 오히려 지난 해지기만 했던 삶을 떠올리며 영영 울다가, “온몸이 쥐 일어서는 것”을 느끼며 쓰러져 죽는다. 이 죽음의 장면은 턱없이 적은 금액을 받고 부당한 폭력을 당하며 과도하게 노동해왔던 순간들이 몸에 오롯이 새겨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육체노동을 하는 자신과 육체노동으로 발생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과의 간극을 깨닫게 되는 부분과 겹쳐놓고 보건대, 이 소설은 명백하게 현실에서 발현되는 ‘아픈 몸’과 계급의 관계에 대해 사유하게 하는 측면을 담고 있다. 더욱이 기독교적 내세의 풍요와 현세의 불평등함을 대비하고 전자가 후자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불평등이 새겨진 아픈 몸의 신체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역시 자꾸만 생각되는 것은 자기가 그 주인의 뚱뚱한 주인의 쇠눈깔 같은 눈살 앞에서 꿈쩍도 못하고 팔목이 시도록 무엇을 쓰고 자꾸 눈이 아파지도록 바쁘게 노동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종노릇을 하는 것과 또한 이 말이 주인의 매 끝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어찌할 수 없이 엮어 매인 몸이 되어가지고 소리 한 번 크게 지르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것이 똑같이 생각이 되어서는 공연히 자기의 몸이 어떠한 기운의 충동을 받아서 그만 맥이 없어지고 또한 따라서 무거워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전기선대에서 사람이 떨어졌다.

비록 몇 사람이 아니지마는(그곳은 호젓한 곳이라) 군중은 ‘와’하고 한 곳으로 몰렸습니다. 아! 아! 이 광경을 어찌 봅니까? 떨어진 사람은 단단한 얼음이 깔린 땅바닥에 거꾸로 떨어져 가지고는 사지를 비비 꼬니다. 마치 그 무슨 버리지 모양으로.

조금 있다가 ‘저 피’, ‘저 피’하는 군중의 소리와 함께 그는 입으로 피를 토하면서 숨을 가쁘게 쉬는데, 그 피는 차디찬 얼음 바닥을 검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²²⁾

최승일의 「무엇?」은 전신국의 문서계실에서 일하는 하급 사무원의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는 짧은 소설이다. ‘나’는 위계에 따라 일의 양이 현격하게 차이 나는 사무실에서 누구보다 일을 많이 하지만 가장 적게 돈을 적게 벌어서 끼니마저 제대로 때우지 못하는 처지이다. 날마다 “꼬치꼬치 말라”가던²³⁾ ‘나’는 어느 날, 추운 날씨에 얼어붙어 미끄러운 오르막을 오르는 수레 끄는 말과 마주를 마주치게 된다. 마주에게 엉덩이와 모가지를 사정없이 맞으며 “몸은 땀에 흠뻑 젖”고 “때때로 경련적으로 몸뚱아리의 일부를 부르르” 떠는 말을 보고, ‘나’는 “팔목이 시도록 무엇을 쓰고 자꾸 눈이 아파지도록 바쁘게 노동하는” 자신의 처지와 동질감을 느낀다. 그 순간 근처 전신주에서 노동자가 “무슨 버러지 모양으로” “사지를 비비” 꼬며 떨어지는 광경과 마주하게 된다. “입으로 피를 토하면서 숨을 가쁘게” 쉬는 노동자의 몸을 보면서 ‘나’는 다 같은 사람인데 어째서 누군가는 이렇게 땀과 피 흘리는 몸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에 잠긴다. 이처럼 이 소설에서는 세 개의 몸이 겹쳐진다. 하급 노동자와 말, 그리고 전신주 노동자의 몸, 이들은 모두 노동하는 몸이면서 동시에 고통을 느끼는 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노동하는 몸에 어떻게 착취와 억압이 새겨지고, 중국에는 목숨까지 내놓게까지 되는가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한편 질병과 장애를 가진 이들은 노동 현장으로부터 배제됨으로써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지체장애인들은 걸식을 하여 먹고 하는 일이 많았는데, 예컨대 『별건곤』의 한 기사에서는 황해도 의 어느 공동묘지에 모여 사는 걸인들을 “팔 병신, 다리 병신 등 신체가 온전한 사

22) 최승일, 「무엇?」, 『조선지광』 64, 1927.2., 145-146면.

23) 위의 글, 143면.

람이 별로 없”다고 표현하였고,²⁴⁾ 경성 종로 일대의 걸인을 분석하는 기사에서 또한 걸인 중 “대부분은 신체의 불구자”라는 점을 밝혔다.²⁵⁾ 이효석 「도시와 유령」의 여인네, 강경애 「지하촌」의 칠성이와 사내 등 당대 소설 속에도 걸식하는 지체장애인들이 여럿 등장한다. 「도시와 유령」은 상업학교 공사터의 미장이 ‘나’가 동묘 안에서 노숙을 하다가 불을 번쩍이는 유령을 보게 되고,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 다음 날 밤 다시 그곳에 찾아갔으나 알고 보니 걸인 모자가 성냥을 켜던 것을 유령으로 오해했다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때 걸인 어미의 몸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여인네는 한쪽 다리를 훌쩍 걸었다. 그리고 눈물이 그 다리 위에 푹푹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나는 모든 것을 얼음장 풀리듯이 해독하기는 하였으나 여기서 또한 참혹한 그림을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의 훌쩍 걷은 한편 다리! 그야말로 눈으로 차마 보지 못할 것이었다. 발목은 끊어져 달아나고 장딴지는 나뭇개비같이 마르고 채 아물지 않은 자리가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여인네는 울음에 느끼기 시작하였다.²⁶⁾

사연인즉슨 그 여인네는 남편을 잃고 걸식하며 거리에서 살아가다가 차에 치여 다리를 잃게 된 것이었다.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해 끔찍하게 끊어진 다리 한 쪽을 묘사하는 이 장면은, 번쩍이던 불빛이 기실 유령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반전을 거쳐 모자가 처한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소설의 비극적 페이스스를 극대화한다. 여인의 다리에는 가난이 새겨져 있다. 가난하기 때문에 거리에 나서다 자동차에 치였고, 다쳤으나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없었으며, 성한 몸이 아니기에 앞으로는 구걸조차 할 수 없게

24) 「팔다리 병신 50명, 걸인단장의 성묘식 거행」, 『별건곤』 52, 1932.6., 20면.

25) 「경성부와 걸인 문제」, 『동아일보』, 1927.3.20., 1면.

26) 이효석, 「도시와 유령」, 『조선지광』 79, 1928.7., 117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모두 걸인 모자가 처한 계급적 상황으로 귀결된다. 그렇기에 이 비극은 운명적이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이다. 결말부에서는 서술자 ‘나’가 갑자기 소설의 표면에 떠올라 독자를 향해 논평을 건넨다. “어떻게 하면 이 유령을 늘어가지 못하게 하고 아니 근본적으로 생기지 못하게 할 것인가? 현명한 독자여! 무엇을 주저하는가. 이 중하고도 큰 문제는 독자의 자각과 지혜와 힘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²⁷⁾ 독자로 하여금 실천을 도모하게 하는 이 프로파간다적 마지막 물음은, 소설이 인간의 고통을 구조적 문제로부터 찾고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케 해준다. 걸인 여인의 장애는 사회적 억압과 착취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지하촌」에는 온갖 ‘아픈 몸’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한다. 걸식으로 먹고 사는 지체장애인 칠성, 시각장애인 큰년, 공장에서 노동하다 다리를 잃게 된 사나이를 비롯해서, 전염병을 앓고 있는 칠운과 머리에 종기가 난 영애, 출산 후 몸조리를 하지 않아 생식기에 혹을 달고 사는 칠성의 어머니 등 등장인물 대부분은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 소설의 초점화자인 칠성은 어린 시절 홍역을 앓았지만 가난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해서 팔과 다리에 손상을 입었으며, 큰년과 사나이 또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칠성의 어머니, 칠운과 영애는 질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칠성은 큰년 어머니가 출산을 했다는 것을 짐작하면서 “왜 이 동네 여인들은 그런 병신만을 낳을까”²⁸⁾ 의아해하기도 한다. 이들의 ‘아픈 몸’은 빈곤과 열악한 생활환경 및 노동환경 등을 원인으로 하고 있거니와 그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계급적 흔적이 새겨진 장소다. 요컨대 「지하촌」은 ‘아픈 몸’이 겪는 고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며, 계급과 교차하는 질병과 장애 그 자체의 현전에 주목한다.

27) 위의 글, 121면.

28) 강경애, 「지하촌(7)」, 『조선일보』, 1936.3.20., 4면.

이러한 생각을 하다가 무심히 그의 팔을 들여다 보았다. 다 해진 적삼 소매로 맥없이 늘어진 팔목은 뼈도 살도 없고 오직 누렁다 못해서 푸른 빛이 도는 가죽만이 있을 뿐이다. 갑자기 슬픈 맘이 들어 그는 머리를 들고 한숨을 푹 쉬었다. 큰년이가 눈을 감았기로 잘했지. 만일 두 눈이 동글하게 떠었다면 이 손을 보고 십 리나 달아날 것도 같다. 그러나 큰년이가 이 손을 만져 보고 왜 이리 맥이 없어요. 이 손으로 뭘 하겠수 할 때 엔…… 그는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그저 한숨만 맥없이 내쉬고 들여 쉬다가 문득 약이 없을까? 하였다. 약이 있기는 있을 터인데…… 큰년네 바자 위에 동글하게 심어 붙인 거미줄에는 수없는 이슬방울이 대롱대롱했다. 저런 것도 약이 될지 모르지. 그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거미줄에서 빛나는 저 이슬방울들이 참으로 약이 되었으면 하면서 그는 조심히 거미줄을 잡아당기려 했다. 팔은 맥을 잃고 뿐만 아니라 자꾸만 떨리어 거미줄을 잡을 수도 없지만 마자만 흔들리고 따라서 이슬방울이 후두두 떨어진다. 그는 손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이슬방울을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한 방울도 그의 손에는 떨어지지 않았다.

“에이 비 빌어먹을 짓!”

그는 이런 경우를 당할 때마다 이렇게 소리치고 말없이 하늘을 노려보는 버릇이 있다.²⁹⁾

이 소설에는, 마을 아이들이 팔과 다리가 불편한 칠성을 흉내내는 모습을 다룬 첫 장면을 시작으로 그의 ‘아픈 몸’에 대한 서술이 자주 등장한다. 칠성은 자신의 몸을 보면서 팔과 다리를 사용해 김을 매거나 나무를 하러 다니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 이슬방울이나 땀싸리 나무가 자신의 병에 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그것들을 먹으려 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칠성의 욕망은 큰년을 향해 있다. 그는 구걸해 온 과자를 주려한다든가 동냥해서 산 옷감을 전해주려 한다든가 큰년에 대한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녀가 곧 돈 많은 집의 첩으로 시집가게 되면서 그의 욕망

29) 강경애, 「지하촌(4)」, 『조선일보』, 1936.3.17., 4면.

은 좌절된다.³⁰⁾ 이처럼 「지하촌」은 장애인의 욕망과 그것의 좌절을 은유가 아닌 현실로서 꺾진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장애 재현 문학의 새로운 맥을 열어젖힌 중요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칠성은 장애인으로서의 처지를 떠올릴 때마다 “말없이 하늘을 노려보는 버릇”이 있을 정도로 자신의 몸이 손상된 것은 하늘의 탓이라며 운명론적인 태도를 지닌 인물이다. 그런데 그의 이런 믿음에 균열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부잣집에 동냥하러 갔다가 개에게 물려 도망친 직후 어느 사나이와 만나게 된 것이다. “자신과 같은 불구자인 거지”³¹⁾ 행색을 한 사나이는 젖은 칠성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주고, 아침을 먹지 못했다는 칠성의 말에 말라가는 노란 조밥을 나누어 주며, 개에게 물린 칠성의 상처를 걱정해 준다. 칠성은 그런 그에게 “어머니를 대한 것처럼 어딘가 모르게 의지하고 싶은 생각과 믿는 맘”³²⁾마저 가지게 된다. 사나이는 칠성에게 ‘배 안의 병신’이냐고 묻고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인다.

“이 친구 나도 한 가정을 가졌던 놈이우. 공장에서선 모범 공인었구. 허 허 모범 공인! …… 다리가 꺾인 후에 돈 한 푼 못 가지고 공장에서 나오니 계집은 달아나고 어린 것들은 배고파 울고 부모는 근심에 지리 돌아가지구…… 허 말해서 뭘 하우.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하는 놈이 저 하늘인 줄 아우? 이 땅인 줄 아우?”

사나이는 칠성을 딱 쏘아본다. 어쩐지 칠성의 가슴은 까닭 없이 두근거리 차마 사나이를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꺾인 다리를 보았다. 그리고 사나이의 다리 밑에 황소같이 말 없는 땅을 보았다.

30) 송명희는 칠성의 이러한 욕망을 성적인 것으로 보고 “성적 욕망의 좌절을 진지하게 그려냄으로써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성적 아이덴티티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좌절을 공감적 태도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이 소설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송명희, 「장애와 질병, 그리고 빈곤의 한계상황: 강경애의 「지하촌」을 중심으로」, 『문예운동』 156, 문예운동사, 2022, 88-89면.

31) 강경애, 「지하촌(14)」, 『조선일보』, 1936.3.29., 4면.

32) 강경애, 「지하촌(16)」, 『조선일보』, 1936.4.2., 4면.

“아니우. 결코 아니우. 비록 우리가 이 꼴이 되어 전전걸식은 하지만 두. 왜 우리가 이 꼴이 되었는지나 알아야 하지 않소…… 내 다리를 꺾게 한 놈도 친구를 저런 병신으로 되게 한 놈도 다 누구겠소. 알아들었수? 이 친구.”

사나이의 이 같은 말은 칠성의 뼈끝마다 짹짹 저리게 하였고, 애꿎은 하늘만 땅만 저주하던 캄캄한 속에 어떤 번쩍하는 불빛을 던져주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생각하면 아찔해지고 팽팽 돌아간다.³³⁾

늘 하늘을 원망하며 노려보던 칠성에게 사나이는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하는 놈이 저 하늘인 줄 아우? 이 땅인 줄 아우?”, “내 다리를 꺾게 한 놈도 친구를 저런 병신으로 되게 한 놈도 다 누구겠소.”라고 다그친다. 이들이 처한 상황을 하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사나이의 말에는, 장애가 인간 사회의 사회구조적 문제에 의한 것이라는 뉘앙스가 깔려있다. 이에 칠성은 “애꿎은 하늘만 땅만 저주하던 캄캄한 속에 어떤 번쩍하는 불빛을 던져주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생각하면 아찔해지고 팽팽 돌아” 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의 운명론적 세계관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소설은 칠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사나이의 집을 떠나 마을에 도착했을 때 “묵중하고 알 수 없는 의문이 뒤범벅되어”³⁴⁾ 버린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점을 환기하자면, 칠성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 이 변화를 견인하는 인물이 같은 처지의 지체장애인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아픈 몸’의 고통은 그들을 연결하는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³⁵⁾ 사회 변혁의 잠재적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33) 강경애, 「지하촌(15)」, 『조선일보』, 1936.3.31., 4면.

34) 강경애, 「지하촌(16)」, 『조선일보』, 1936.4.2., 4면.

35) 구자연은 칠성과 사나이의 대화 장면이 “보편적 돌봄”의 이상과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의 가치를 상기시킨다”고 본다. 구자연, 「강경애 소설 속 질병·장애의 재현과 방언 발화의 의미」, 『춘원연구학보』 24, 춘원연구학회, 2022, 142면.

3. 산재, 존재와 연대의 가능성

식민지기 질병·장애 재현을 논할 때, 빠트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산업 재해'이다. 이 용어는 이미 1926년 일본의 의학 문헌인 『日本之醫界』에 등장한 바 있으며,³⁶⁾ 조선의 매체에서도 1920년대 후반부터 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이를 사용한 경우가 확인된다.³⁷⁾ 그러나 용어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 현장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이 노동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는 일이 잦아졌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부들이 작업 중에 추락하거나³⁸⁾ 기계에 몸이 빨려 들어가거나³⁹⁾ 영양실조, 폐병, 뇌일혈에 걸리는⁴⁰⁾ 등의 사건이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보도됐다. 이 기사들의 논조는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관련 보상 정책은 매우 미비했고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치 또한 빈약했다.⁴¹⁾ 회사는 산재 노동자들을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로 보고 제대로 보상하지 않은 채 일터에서 쫓아내는 경우가 허다했다.⁴²⁾

36) 김창엽·문옥륜, 앞의 글, 48면.

37) 「산업사고방지연맹 노동총회」, 『동아일보』, 1927.12.30., 1면; 「국제노동회의」, 『동아일보』, 1928.6.2., 1면; 「지방기계의 완화를 간담」, 『동아일보』, 1929.8.12., 1면; 「경성상의역원회」, 『동아일보』, 1929.3.5., 6면 등.

38) 「공사 중의 인부 추락 중상」, 『중외일보』, 1927.5.31., 2면; 「참! 목수의 사, 추락한 데 우 수거, 떨어지자 기계톱에 걸려 무참히도 썰리어 죽었다」, 『중외일보』, 1930.4.13., 3면 등.

39) 「돌아가는 피대에 소년공 중상했으니 기계를 의연 돌리었다고 회사에 대한 비난이 있다」, 『중외일보』, 1927.8.25., 2면; 「기계말려 참사 노동자의 최후」, 『중외일보』, 1930.4.5., 3면 등.

40) 「작업중 양역군 영양부족으로 졸사, 잘 먹지 못하고 고역하다가 동문 체석장의 참극」, 『중외일보』, 1929.3.15., 2면; 「십팔년 간 차부생활하고 소득은 폐병 사망」, 『중외일보』, 1927.11.27., 2면; 「직공의 번사 뇌일혈로 죽어」, 『매일신보』, 1926.7.2., 3면 등.

41) 이요한, 앞의 글, 31-34면.

42) 자본주의와 장애 차별에 대한 팻 스택의 다음과 같은 서술을 참고할 수 있다. "장애인 억압의 근원은 자본주의가 모든 것을 이윤과 이윤율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사실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본가들이 장애인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영향을 끼친다. 대부분의 고용주

프로소설의 질병·장애 재현은 대체로 산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노동자들이 기계에 끼여 팔과 다리를 잃거나 직업병에 걸리고, 그로 인해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이한 것은 그들의 ‘아픈 몸’이 어떤 잠재성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프로소설에 나타난 산재로서의 질병·장애 재현은 당대의 노동환경과 노동자들이 받는 부당한 처우를 현실적으로 드러낸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픈 몸’을 매개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의 순간을 포착해 보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즉, 노동자들의 ‘아픈 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험하는 억압과 착취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순응하지만은 않는 저항적 존재로의 전이를 추동하거나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이끌어 낸다.

아까 병원에서 나올 때 간호부장이란 이가 주던 것을 덧없이 받아 들고 와서 무릎 위에 놓고 앉았다가 그것이 무엇인지 풀어서 보고 싶어졌다. 군데군데 피가 스며 나오는 것을 봐서는 남편의 입었던 피 묻은 옷으로 알고 뒤적거리었다. 그러는 동안에 피 묻은 옷 이외의 무게가 있는 것을 차차 알아졌다. 한 자락을 잡아드니까 무엇이 드르르 굴러 떨어졌다. 은순은 기절이 된 듯이 뒤 벽에 쓰러졌다.

“끊어진 다리 한 개”

남편의 부러진 다리를 둘둘 뭉쳐 주었던 것이다.⁴³⁾

예컨대 최인아의 「노동자의 아내」에서 수길의 아내 은순은 남편의 “끊

들은 장애가 있는 고용인을 어렵고, 다르며, 고용에 더 많은 돈이 드는 ‘문젯거리’로 여긴다. 물론 이는 자본가들이 장애인들이 값싼 노동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억압은 다른 궤도에서 시작되는데, 그 최초의 가정(假定)은 장애인들이 자본주의 내에서 큰 도움이 되기보다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억압은 자본주의가 이윤을 위해 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잘라내는 방식의 반영이다.” Pat Stack, “Why are disabled people oppressed?”, *Socialist Worker*, 2007.7.28.

<https://socialistworker.co.uk/features/why-are-disabled-people-oppressed/>

43) 최인아, 「노동자의 아내」, 『별건곤』 27, 1930.3., 122면.

어진 다리 한 개”를 받아 들고는 회사를 향해 분노하고 노동자들 앞에서 연설하는 ‘노동자의 아내’로 거듭난다. 부르주아적 가치를 중요시하던 은순이 수길의 손상된 신체 부위를 보고 난 뒤 노동자의 불합리한 노동환경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 변화의 국면은 극적이다. 본래 은순은 수길이 전당국집 아들인줄 알고 결혼했으나 실상은 그가 사촌 아저씨의 집에서 양자로 자란 난봉꾼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실망을 금치 못하던 인물이다. 사촌 아저씨를 대신해 전당국에서 일을 하던 수길이 임신한 은순에게 음식을 사주려고 전당국의 돈을 몰래 쓴 죄로 집에서 내쫓기게 되자, 은순은 어떻게 먹고 사나며 수길을 미워하기도 한다. 그러다 수길이 처가의 주선으로 조선공예주식회사에 들어가고, 은실은 수길에게 낚아서 끊어진 모터 벨트에 맞아 눈알이 빠진 노동자의 이야기나 원료실에서 쏘아지는 냄새에 모든 노동자들이 곁을 앓지 앓을 수 없는 노동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로부터 나흘이 지나 노동을 하던 수길의 다리가 끊어진 것이다. 병원으로부터 남편의 다리를 받고 충격을 받은 은순은 병원에 찾아가 회사에서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수길이 봉합 수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에 분노한 은순이 교섭을 위해 회사를 찾아가고, 노동가들을 향해 연설을 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난다. 김열로 인해 연설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앞의 문맥상 착취에 무더져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각성시키려는 연설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수길의 ‘아픈 몸’은 은순을 변화하게 하는 매개가 되고 있다.

나는 확실한 병신이 되어 나왔다. 세수를 한다는 것이 얼굴에 물을 찍어 바르는 것뿐이요, 밥을 먹을 때나 편지 한 장을 써야 할 때에도 서투른 왼편 손을 써야 할 왼손잡이가 되었다.

× × ×

퇴원하는 날은 공장감독이 와서 입원료와 치료비를 물어주고서 같이 공장으로 갔다. 공장주인은 나를 대하여,

“당신이 이번에 당한 일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이 섭섭한 일이에요. 그러나 당신이 일에 대한 숙련이 되지 못한 까닭이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을 터이지요. 당신의 손해도 손해려니와 우리 공장으로서도 당신의 삼시간의 부주의한 탓으로 뜻밖에 수백 원 손해를 보지 않았겠소. 아까 공장 감독이 가서 입원료와 치료비 값은 보고 썼으면 알 터입니다. 모두가 당신의 운수소관이에요.”⁴⁴⁾

김병제의 「떨어진 팔」은 산재를 입고 회사로부터 쫓겨난 조선인 노동자와 이에 분개한 일본인 노동자 사이의 연대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소설이다. 이 소설의 1인칭 서술자 ‘나’는 후쿠오카와 오사카 일대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오사카의 자기공장에 취직하게 된다. ‘나’는 기계실의 모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도맡는데, 이 기계는 6년이 되기도 전에 다섯 사람의 팔다리를 잃게 하고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기계 앞에서 오늘 하루도 별탈 없이 무사히 지나게 해달라고 소리 없이 기도하곤 한다. 그러다 ‘나’ 역시 모터에 팔을 잃게 되고, 회사는 입원비와 치료비는 물어주지만 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당신의 삼시간의 부주의”나 “운수소관”으로 치부하면서 위로금 50원에 나를 해고한다. 또한 일본인 노동자와 갈라치며, 조선에서 왔기에 그나마 50원이라도 전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며 그를 회유한다. 이에 분노한 일본인 노동자 가와가미 군을 비롯한 다른 노동자들은 회사와 함께 싸워주겠다고 말한다. “이번 일은 박군 개인의 일이라고 하겠지만 금후의 우리들을 위하여 싸워야겠습니다.”⁴⁵⁾ 노동자들은 일제히 파업에 들어가 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산재 보상금으로 450원을 받을 수 있게 싸우고, 결국에는 교섭에 성공하게 된다. 「떨어진 팔」은 조일(朝日) 노동자들의 연대를 이끌어 내고, 이로 인해 발생한 파업은 원래 회사의 요구에 그저 순응하기

44) 김병제, 「떨어진 팔」, 『조선지광』 93, 1930.11., 48-49면.

45) 위의 글, 50면.

만 했던 ‘나’로 하여금 “공장노동자로서 떳떳한 체험”⁴⁶⁾을 했다고 느끼게끔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북명 또한 산재에 예민하게 반응한 작가다. 「기초공사장」에는 우인치가 가슴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된 봉원의 이야기가, 「출근정지」와 「초진(初陳)」에는 폐결핵에 걸려 해고된 창수와 문길의 이야기가, 그리고 「오전 세 시」에는 탱크 위에서 야근하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 떨어진 모형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모형은 “삼십 자나 되는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져서 머리가 깨져서 무참히도 세상을 떠난 직공이다.”⁴⁷⁾ 회사는 약취와 소음, 그리고 졸음을 견뎌야만 하는 환경의 문제를 감춘 채 모형의 죽음을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 회사의 이러한 대처는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에 뿌리 깊은 상처를 남긴다.

이 탱크 안에서 암모니아, 유산, 탄산이 몇 백 기압으로 화합하여 지독한 약품을 만들어낸다. 이 약품을 린광석(磷鑛石)과 화합시키면 유인산비료(硫酸肥料)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압이 항상 높고 있는 탱크이니 만큼 항상 폭발이 될 위험성이 많다. 직공들은 이 탱크 곁으로 다니기를 싫어한다. 탱크는 직공들에게 마(魔)같이 보였다.

얼굴이 양초빛같이 희고,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뼈만 남게 여윈 창수의 모양은 삼 년 동안의 직공 생활에 너무도 엄청나게 달라졌다. 창수는 지금 변성직장의 모범직공으로 이 변성탱크 조절의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러나 고된 노동과 숨이 막히는 약취는 폐결핵이라는 선물을 창수에게 주었다. 구부러든 허리를 더 구부리면서 쉴 새 없이 기침을 한다.⁴⁸⁾

46) 위의 글, 51면.

47) 이북명, 「오전 세 시」, 『조선문단』 23, 1935.8., 42면.

48) 이북명, 「출근정지」, 『문학건설』 1, 1932.12., 9면.

암모니아 탱크에서 새는 기체 암모니아는 눈, 목, 콧구멍을 심하게 적셨다. 포화기에서 발산하는 유산의 증기와 철이 산화하는 냄새와 기계유(油)가 타는 악취가, 그다지 넓지도 않은 직장 내에서 산화하여 일종의 독특한 악취를 직장 내에 감돌게 하고 있었다. 유산직장에서는 목이 아프고 콧물이 흐르고 눈에서 눈물이 나와도 어쩔 수가 없었다. 직공들은 가제로 마스크를 만들어 쓰고 있었지만 그런 것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의 찢어진 우산 같은 것이었다. (...) 데크(deck)에서 떨어지는 유산의 물방울은 그들의 작업복을 벌집 같이 구멍내었다. 그리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아팠다. (...)

문길은 냅다 소리 지르고 싶었다. 공기 빠진 고무공 모양으로, 탄력을 잃어가는 자신의 몸상태를 깨달은 후부터 그는 우울증에 걸렸다. 가슴이 괴롭고, 식욕이 쇠퇴하고, 기침이 나오고, 밤에는 식은땀으로 내의가 흠뻑 젖은 때가 많았다.⁴⁹⁾

이북명의 소설은 주로 산업도시 흥남의 질소비료공장을 배경으로 한다. 이때 특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질병은 폐결핵이다. 위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질소비료의 원료인 암모니아는 악취와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되고, 암모니아 탱크는 늘 폭발의 위험을 안고 있는 위험 시설이기도 하다. “고된 노동과 숨이 막히는 악취”는 노동자들을 폐결핵이라는 질병으로 몰아넣어 그들의 몸을 병들게 한다. 이북명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그로 인해 달라진 노동자의 몸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그들은 “양초빛같이 희고,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뼈만 남게 여”위고 “공기 빠진 고무공 모양으로, 탄력을 잃어”간다. 회사는 불경기를 이유로 이렇듯 “병 있는 직공”을 비롯해 “x마디나 하는 직공, x자나 보는 직공”⁵⁰⁾을 해고하고자 한다. 창수는 해고를 앞두고 암모니아 탱크의 폭발로 사망하고, 문길이는

49) 이북명, 「초진(初陳)」, 이화경 옮김, 『한국 노동소설 전집 3』, 보고서, 1995, 163-165면. (『文學評論』 2(6), 1936.6.)

50) 이북명, 「출근정지」, 12면.

건강검진을 통해 결핵을 진단받은 뒤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데 이들 소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출근정지」에서 암모니아 탱크가 폭발해 창수, 응오, 성삼을 비롯한 일곱 명의 노동자가 죽음을 맞이하자, 직공들은 죽은 노동자들의 가족을 책임지라고 소리치거나 회사가 불경기를 핑계로 질병 있는 창수 등의 출근을 막았던 것에 저항한다. 이들의 산재 이후, 삼천 명의 직공들이 공장의 열악한 환경과 부조리한 해고에 맞설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초진」은 회사의 삼엄한 감시 아래서 친목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주된 축을 이루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친목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질병으로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해고를 반대하는 것이었지만, 주요 인물들이 경찰서에 끌려 들어가게 되면서 해고 반대 투쟁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된다. 그러나 투쟁의 열기는 문길의 결국 폐결핵으로 죽게 되는 것을 계기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문길의 처는 회사 정문 앞에 오자 와양-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군중은 머무처 선 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때, 호상자(護喪者) 사이에서 누군가의 휘파람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순식간에 휘파람은 퍼져갔다. 그것은 틀림없이 메이테이가였다.

“불지마.”

기미순사가 말을 달리면서 소리쳤다. 그러나 휘파람은 그치지 않았다.
(...)

“노래 부르지마.”

기미순사가 목이 터질 것 같은 소리로 고함쳤다. 경비원이 뛰어 왔다. ……의 일대가 자동차를 날 듯하며 왔다. 한 사람이 끌려가면 그것을 …… 하려고 하는 군중의 우렁찬 소리가 일어났다. 구경하고 있던 군중 속에서도 끌려가는 사람이 있었다. 자동차가 호상객을 한 차 유치장에 넣고 나서 빈 차를 날라 왔을 때에는 군중은 거의 흩어지고, 호상객의 반은 자유를 잃고 있었다. 그러나 공장 내의 노래 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이런

광경을 뒤에 남김 채, 문길의 영구는 쓸쓸한警戒裸에, 공장가를 천룡리의 무덤지를 향해 나아갔다.

공장 내에서 흘러오는 비장한 메이테이가를 뒤로 들으면서.⁵¹⁾

위 인용문은 문길의 상여가 공장으로 들어서자 노동자들이 메이테이가를 부르기 시작하고, 영구가 공장을 빠져나올 때까지 노랫소리가 그치지 않는 것을 보여 주는 「초진」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를 통해 소설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그들이 이제 더 견고한 저항의 탑을 쌓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이렇듯 이북명의 소설 속에서 산재로 죽거나 병든 몸은 다른 노동자들의 분노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고, 남은 노동자들은 그것을 계기로 계급의식을 다지고 회사에 저항하는 연대의 기반을 만들어 간다. “빵 때문에, 병 때문에 양방으로 괴롭혀지는”⁵²⁾ 상황을 고발하는 N공장 친목회의 선전문은 이북명이 노동자들이 처한 계급적 조건과 ‘아픈 몸’의 문제를 동시에 사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4.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질병과 장애를 재현하는 식민지시기 프로소설의 두 양상을 살폈다. 억압과 착취가 새겨지는 ‘아픈 몸’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소설들과 ‘아픈 몸’을 통해 존재와 연대를 이끌어 내는 것을 보여주는 소설들을 차례대로 검토했다. 주요섭의 「인력거군」, 최승일의 「무엇?」, 이효석의 「도시와 유령」, 강경애의 「지하촌」 등은 사회적 불평등이 고스란히 축적된 몸을 재현한다. 그러한 몸은 빈곤과 열악한 생활환경 및 노동환경 등을 원인으로 하면서 그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있으므로 계급적

51) 이북명, 「초진」, 194-195면.

52) 위의 글, 190면.

흔적이 새겨진 장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아픔으로부터 비롯된 고통은 그것을 통각하는 몸들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사회 변혁의 잠재적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기도 하는데, 특히 「산업재해를 다루는 소설들에서 그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최인아의 「노동자의 아내」, 김병제의 「떨어진 팔」을 비롯해 산재가 빈번히 등장하는 이복명의 소설들은 노동하다가 다친 몸이 어떻게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를 이끌어 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프로소설의 ‘아픈 몸’은 변혁의 잠재성을 품고 있다.

프로소설에서 재현되는 ‘아픈 몸’은 운명적인 것으로 치부되거나 치유·치료의 영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프로소설은 질병과 장애를 계급과 교차하여 재현하면서 그것을 사회적인 것으로 사유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때의 질병과 장애는 은유라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현실 그 자체이며, 사회구조적 차별과 억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들 소설은 ‘아픈 몸’을 현실적으로 드러내 보여 주면서 ‘건강한 몸’으로 발현되는 ‘정상성’의 폭력을 고발하고 그것에 균열을 가한다. 요컨대 프로소설에서 재현되는 질병과 장애는 극복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진다기보다는 아픈 존재가 놓인 사회적 조건을 드러내 보여주고, 오히려 고통을 통해 주변적 존재들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프로소설이 드러내는 아픈 몸의 계급적 현실이 100여년이 흐른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그 정치적 의미는 곧 현재적인 것이기도 하다. 질병과 장애가 재현된 프로소설에 여전히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개벽』, 『동아일보』, 『매일신보』, 『문학건설』, 『별건곤』, 『조선문단』, 『조선일보』, 『조선지광』, 『중외일보』

안승원 엮음, 『한국 노동소설 전집 3』, 보고사, 1995.

2. 단행본

고미숙, 『『독립신문』에 나타난 ‘위생’ 담론의 배치』, 『근대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변용』, 소명출판, 2005.

김승섭, 『우리 몸이 세계라면』, 동아시아, 2018.

정근식, 『식민지 지배, 신체 규율, ‘건강’』, 미즈노 나오키 외, 『생활 속의 식민지주의』, 산치림, 2007.

김은정,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강진경·강진영 옮김, 후마니타스, 2022.

로디 슬로라크, 『마르크스주의와 장애』, 이예송 옮김, 『마르크스21』 40, 책갈피, 2021.

마타 러셀, 『자본주의와 장애』, 조영학 옮김, 동아시아, 2022.

수전 손택, 『은유로서의 질병』, 이재원 옮김, 이후, 2002.

3. 논문

구자연, 『강경애 소설 속 질병장애의 재현과 방언 발화의 의미』, 『춘원연구학보』 24, 춘원연구학회, 2022, 117-153면.

권채린, 『1920~1930년대 ‘건강’과 ‘질병’을 둘러싼 대중담화의 양상』, 『어문론총』 64,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189-214면.

김주리, 『식민지 지식 청년의 표상과 결핵』, 『서강인문논총』 41,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457-488면.

김창엽·문옥륜, 『일제하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문헌 고찰』,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24(1), 대한예방의학회, 1991, 45-56면.

백승숙, 『염상섭의 〈만세전〉과 1918년 스페인독감』, 『문화와 융합』 44(4),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475-490면.

엄학준·문한별, 『근대 초기 위생 담론에 투영된 왜곡된 국민 개념과 감성적 민족 주제: 국권상실 이전 시기 학술지와 협회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 42, 사단법인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2, 5-27면.
- 윤희상, 「전시체제기 피식민 ‘신체’의 구성과 문학적 증언 연구: 중독, 장애, 오염의 상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 이승원, 「20세기 초 위생 담론과 근대적 신체의 탄생」, 『문학과 경계』 1(1), 문학과경계사, 2001, 300-317면.
- 이요한, 「1920~30년대 일제의 장애인정책과 특징」,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최성민, 「질병의 낭만과 공포: 은유로서의 질병」, 『문학치료연구』 54, 한국문학치료학회, 2020, 351-344면.
- 한만수, 「식민지 시기 검열과 1930년대 장애우 인물 소설」, 『한국문학연구』 2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5, 7-33면.
- Kyeong-Hee Choi, *Impaired Body as Colonial Trope: Kang Kyongae's "Underground Village"*, Public Culture v.13, 2001.
- Pat Stack, "Why are disabled people oppressed?", Socialist Worker, 2007.7.28.
<https://socialistworker.co.uk/features/why-are-disabled-people-oppressed/>

<Abstract>

The 'Sick Body' and Class

– Reproduction of disease and disability in proletarian novels during the colonial period

Choi, Eunhye

The proletarian novels during the colonial period reproduce diseases and disabilities by corresponding them to classes. The "Sick Body" reproduced in the novel is neither deemed as something fateful nor stays in the domain of healing and treatment. The proletarian novels require attention in that they enabled us to deliberate the diseases and disabilities as social things beyond these individual perspectives. The diseases and disabilities reproduced in proletarian novels are a reality itself that suffers from them rather than a metaphor, and are created by social structural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They expose such a body realistically, thereby entailing the social reporting of the violence of 'normality' that is represented as a 'healthy body' and cracking it. The normality at this time embraces the order created by imperialism and capitalism.

This study examines two aspects of the proletarian novels that reproduce diseases and disabilities. One is that it is revealing an awareness of how oppression and exploitation are carved into the 'Sick Body.' And, another is that the 'Sick Body'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discovering existence in classes and deriving solidarity among workers, especially in novels focusing on the issues of industrial accidents. In summary, the diseases and disabilities reproduced in proletarian novels cause political meaning in that they disclose the social conditions in

which a ‘Sick’ existence has been put in place and rather attempt to link with surroundings through pain, rather than being considered as the subjects to be cured actively.

Key words: Sick body, Disease, Disability, Proletarian novel, Lee Buk-Myung, Industrial accident

투 고 일: 2023년 2월 15일

심 사 일: 2023년 3월 8일

게재확정일: 2023년 3월 8일

수정마감일: 2023년 3월 22일